

“情 바탕 환자만족”, 봉사 表象  
 유명교수 영입, 영동 중추 병원 재도약  
 개원 21년, ‘노인요양 · 정신과’ 特化  
**강릉동인병원**



깨끗한 공기, 울창한 松林과 호수, 맑고 김  
 푸른 동해바다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天惠  
 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고장.

한반도의 등줄기인 태백준령과 멋진 풍  
 광을 사랑하는 동해를 끼고 있어 春(꽃),  
 夏(바다), 秋(단풍), 冬(눈) 4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강릉!

“정직한 진료, 높은 질의 진료, 겸손한  
 진료”를 기치로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  
 중추 병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시혜를

퍼오고 있는 동인병원은 2003년 개원 20주  
 년을 재도약의 전기로 삼아 꾸준히 발전을  
 추구해나가고 있다.

지난 83년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으로 강  
 릉시 포남동에서 개원한 동인병원(이사장  
 이달영, 원장 이상운)은 그간 지방 병원들  
 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경영난을 극복해  
 내면서 외형 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이  
 림으로써 성공적인 지역의료기관 운영의  
 표본이 되고 있다.(동인병원은 설립자 이달

강  
 릉  
 동  
 인  
 병  
 원

영 이사장이 65년 동인의원으로 첫 개원한 것부터 포함하면 실제 의료기관 운영역사가 40년에 이른다) 개원 당시 200병상으로 출발한 동인병원은 현재 정신병동 288병상을 포함, 676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확대되어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 로비- 햇살가득한自然光

동인병원은 자연채광으로 로비 쏘면에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게 병원 건립 당시부터 설계되어 여름에는 오후 8시까지도 일조 시간내엔 자연광인 햇빛 혜택을 보고 있어 전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 날씨가 흐리지 않을 땐 항상 햇살 가득한 자연광이 반사되어 환한 실내가 지속된다고.

### 마음으로부터의 친절-환자대면 기본

로비에서 매일 아침 8시 20분이면 어김



없이 전직원이 모여 아침 체조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한다.

‘인화, 성실, 박애, 친절’ 원훈낭독에 이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로 아침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환자들도 구경을 하는데 이 평범한 對面예절의 기본이 자연스럽게 친절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고.



### 서울 유명대학 교수 았다튀 영입, 진료참여

대학병원급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우수 의료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삼성서울병원 부원장과 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을 지낸 추광철 교수를 비롯, 경희대부

속병원을 거쳐 역시 삼성서울병원부원장을 역임한 채수응 교수(비뇨기과), 한림의대 임현준 교수(前이비인후과학회장)등 서울 주요 대학병원 유명 교수들을 영입하여 영동지역 의료 수준을 선도하고 있다.(추광철 교수는 지난해 7월 동아일보에서 인후두경부 질환 명의로 선정되기도 함) 또한 마취과엔 미국 종합병원 근무경력이 있는 스태프가 귀국하여 진료에 임하고 있고 방사선과에도 대학교수를 역임했던 의료진이 영입됐다.

전체 스태프 중 서울의대, 연세의대, 가톨릭의대 등 명문의대 출신이 30% 이상에 이른다고 병원관계자는 귀띔.



### 삼성서울병원 등과 협약, 지역의료 수준 한차원 높여

삼성서울병원과 97년 협력병원 체결 후 2001년 2월 모자병원 협약을 체결하여 전임의, 전공의 등 의료인력 파견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서울마리아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국군강릉병원, 순천향대병원(소화기병센터)과 협력병원 협약을, 중국도문시립병원과는 자매결연을 하여 상호 환자의뢰 및 최신의학정보 교류와 동시에 다양한 임상 수련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함으로써 지역병원의 부족한 의료진을 충원, 지역 의료 수준을 한차원 높여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불임·성장기 알레르기 클리닉, 양한방협진클리닉도

국내 최대 불임전문병원인 서울 마리아병원 협력 아래 불임 클리닉을 개설하였으며, '성장기 알레르기 클리닉'에서는 매달 첫째주 토요일 삼성서울병원 이상일 교수가 직접 진료하고 있다.

이 밖에 중앙외과 클리닉, 대장항문 클리닉, 소아청소년 신경정신 클리닉(삼성서울병원 전문의 파견), 턱얼굴외과 클리닉(구

강악안면외과, 강릉대 치대병원과 연계), 모발 클리닉이 있으며 임상심리검사실도 개설했다.

또 재활 클리닉, 뇌졸중 클리닉을 양·한 방협진으로 운영하고 있다.

### 노화방지 클리닉

『백세까지 젊음을』을 모토로 노화방지 부문의 세계적 전문 클리닉인 미국의 Cenegenics Institute와 공동으로 노화방지 Program을 도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노화방지 클리닉은 미국 Cenegenics Institute의 독창적 Program으로 각 개인에 맞는 진료와 처방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최적의 활력상태를 유지하여 만족스런 젊음을 유지시켜주는데 뜻을 두고 있다.

앞으로 노인복지 시설에 노화 클리닉을 개설해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처럼 수용위주가 아니라 건강증진 복합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 1.5T MRI, Angio, Mammography 등 첨단장비 가동

2000년 5월 Angio(혈관촬영조영기)를 설치했으며, 지난해 2월 영동권 최고기종



의 MRI(Signa Infinity 1.5T)를 도입 가동하고 있는데 암, 신경계질환, 척추질환, 심장질환 등을 1회 촬영으로 원하는 화상을 얻을 수 있으며 촬영된 화상의 재구성으로 보다 정밀한 진단이 가능한 점이 큰 장점이라고.

국가조기암검진사업에 적극 부응하는 병원으로서 5대 암의 하나인 유방암 검진에 필수적인 유방방사선촬영장치(mammography) 가동도 내세울만 하다.



### 디지털시스템을 도입하여 첨단병원화

2001년 영동권 최초로 디지털 의료영

상처리 시스템을 활용한 'Web-PACS 영상센터'를 오픈해 X-ray 필름 없이 컴퓨터 화면만으로 환자의 영상을 조회, 판독하고 저장할 수 있게 했다. 이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흔히 사용되는 브라우저만으로 진단방사선과를 비롯 임상 의사가 외부에서 환자의 영상을 조회, 판독해 신속 정확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되어 환자 중심 병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또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를 도입하여 병원 외래 및 입원 진료 접수, 의사처방, 검사 및 결과 조회, 의료비 수납 등 일련의 문서처리와 데이터 전달 활동을 통합, 전산화하여 의사의 환자기록, 약품정보, 각종 검사 자료 접근이 용이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직원 전용 안락한 도서실, 어린이집 등 복지 후생배려

직원복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지난해 10월 응급센터 건물 4층 병원장실자리를 도서실로 용도를 바꿔 신간, 베스트셀러 등을 포함한 약 8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하여 업무로 바쁜 직원들이 틈을 내어 독서를 하며 쉴 수 있는 정신적 쉼터를 제공함



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기숙사를 의사 및 간호사 뿐만이 아닌 일반 직원들 까지도 무료로 이용하게 하여 주거비용면에서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직장보육시설인 '동인 어린이집'을 개설하여 보육부담에서 벗어나 편안함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 하였으며, 각종 장학회를 설립하여 직원들과 일반 지역민을 대상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과 함께해 온 많은 장기근속 및 우수 직원들에게는 해외연수 혜택을 부여, 폭넓은 견문을 얻도록 하며, 직원 상호회를 설립하여 상호부조토록 하고 있다. 95년 직원 복리후생과 환자 및 보호자들의 금융서비스를 위해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해 현재 760여명의 조합원으로 60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 건전한 신탁으로 성장하고 있다.

### 영동권역 응급의료센터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99년 4월 영동권 응급의료센터 및 보건센터로 개원하여 이



듬해인 2000년 7월 31일 영동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다.

이 센터는 사고나 대량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수준높은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영동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생명 및 건강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응급센터는 환자분류소, 소생실, 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방사선실, 수술실, 중환자병상(20bed), 입원병상(12bed), 보호자대기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센터를 갖추고 있다.

### 움직이는 병원-「현장 이동응급의료소」 개소

지난해 10월 강원도청로부터 ‘움직이는 병원’인 이동응급의료세트(Field Emergency Support System)를 위탁받아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환자 분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현장진료 활동과 병원까지의 체계적인 이송체계를 갖추었다.

이동응급의료세트는 이동차량, 공기막사(Air-shelter) 및 제세동기(Defibrillator, 심장정지된 환자에게 심박동 유도), 산소치료기, 호흡기 등 각종 의료장비와 응급환자용 담요, 이동받침, 내연성장갑 등을 갖추 사고나 대량재해 발생시 현장에서 이동응급의료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병원은 영동권 응급의료센터 지정에 이어 2002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응급의료시설로 선정되어 지원활동을 펴기도 했다.

### 정신보건센터

87년 12월 정신과 병동 100병상 개설로 시작하여 이후 확충을 거듭, 정신보건에 대한 다양한 욕구 및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288병상의 정신보건센터(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850평의 규모)를 운영하고 있다.

쾌적한 치료환경을 갖춘 센터는 정신과





전문의, 전문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로 전문팀을 구성하여 '보호자 없이 24시간 Total care'를 시행하는 집중 간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입원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집단정신치료, 정신건강교육, 사회기술 훈련, 알코올 교육, AA(단주친목회)massage전달모임, 청소년 정체감 형성 프로그램 등이 있다. 최근 복지부로부터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동인병원은 앞으로 노인요양 및 재활 분야를 특화하는 한편 정신과를 전문화시켜 별도의 병원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의료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확충,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보건의 사업 및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여 타 의료기관과의 실질적인 차별화를 이루는 등 지역사회와 밀착된 보건진료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여성부, 여성폭력 긴급의료지원센터 지정

2001년 여성부로부터 민간병원으로서는 처음(전체 병원중 두번째)으로 여성폭력 긴급의료지원센터로 지정받았다. 이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 및 안정된 진료공간을 제공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 발급은 물론 임상각과의 검사와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 아동학대보호병원 지정

동해아동학대예방센터는 영동권의 8개 시·군의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동인병원을 아동학대보호병원으로 지정하였다. 아동학대 보호를 위해 동인 병원은 소아정신과를 운영, 피해아동이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는데 女兒의 경우 필요시 산부인과적 진료도 겸하고 있다.



### 암환자 생일케익 선물, 가족적인 분위기 지어내

2000년 4월 37병상의 암병동이 문을 열어 한현복 1내과부장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항암요법에 있어 무균시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처치실에는 크린벤치후드(UV자외선 멸균소독기)를 설치했다.

암병동에선 생일을 맞는 환자에게 자그마한 케익과 장미꽃을 건네주는 가족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암환자나 그 가족을 내가족이라는 마음자세로 편안한 안식처가 되도록 성의를 다하고 있으며 오디오시스템을 설치하여 식후나 아침회진이 끝나면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어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 문화 공간 탈바꿈

정형화된 병원 이미지를 탈피해 환자나 그 가족에게 잠시나마 아픔과 시름을 덜도록 갖가지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플루트뮤즈 앙상블 공연과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병원 임직원 사진 전시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신생아실 '소망이' -병원가족 정성의 열매

한밤중 강릉시내 한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 포대기에 쌓인 채 주민에게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동인병원으로 한 아기가 후송되었다.

주인공은 병원으로 들어와 뇌수술 등 성인도 감당기 어려운 수술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소망이'. 버려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에 물이 차는 등 뇌조직이 손상되고 수두증까지 생겼고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소망이는 동인병원 신생아실 제일의 중환자로 분류돼 뇌수술 등 여러 차례의 초긴장 상황을 넘겨야 했다. 병원에서 백일 잔치를 해야만 했던 소망이는 현재도 투병중에 있으며 동인병원 모든 임직원은 소망이가 쾌유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 건진센터도 고대맞춤서비스 실천

질환별, 연령별, 개인별, 의료수요자의 특성에 맞춘 진료과별 특수 클리닉을 개발하



고 있다. 종합건진에서도 환자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 ‘고객의 소리’와 사내 그룹웨어의 “좀들어봐요”란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고객 불만을 해결토록 하고 있으며 각종 직무교육시간과 매일 아침 인사시간 친절교육을 통해 친절이 생활화되도록 하고 있다.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종합건진센터(200여평 규모)는 MRI, PACS 등 최첨단 의료기기 및 다양하고 정밀한 검사(암유전자 검사, 양한방협진 검사 등)와 일반검진 등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연령·질환별로 특화된 ‘1대1 맞춤’ 건진 프로그램을 마련(암정밀건진을 비롯 실버심장정밀·발달지연·갱년기·수험생 健珍 등)하여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산부인과 입원환자에게 원적외선 무료 찜질방을 개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SBS 생방송 지구촌 아동구호 대축제 “2003 기아체험 24시간” 프로그램 강원도

구간 촬영시 앰블런스 차량을 지원하였으며, SBS 드라마 “선녀와 사기꾼” 촬영에도 협조했다.



지역과 苦樂함께, 연중 봉사활동 펴

동인병원은 지역의 아픔을 늘 함께 나누면서 성장해왔다. 연이은 영동지역 자연재해때 병원을 대피소로 제공하고, 또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의 가슴아픈 사연을 전해 들었을 땐 자녀를 무료로 치료해 주기도 했다.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연중 봉사활동을 펴며, 연 2회 이상 의료취약지 무료진료 봉사활동 및 소년소녀 가장 무료진료, 영세민 무료 開眼 수술 등에 이르기까지 연 8억원을 무료진료에 투입 지역사회봉사의 표상이 되고 있다.

신입사원 입사교육에 5시간을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로 봉사에 열심

강  
릉  
동  
인  
병  
원

이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는 자매결연을 하여 장애우 도우미를 맡고 있는데 강릉장애인총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의 피해 수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무료진료활동을 펴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



목요일 당뇨 무료검사 및 강좌, 매주 금요일 무료 가훈 써주기(영동시조문학회 회장) 등을 하고 있다.

또 시립합창단 초청 연주회, 불우환자돕기 임지훈 자선콘서트, 크리스마스 이브 동인어린이집 어린이와 산타할아버지의 개인 사진 촬영, 연말연시 환자와 보호자 명화감상회 등도 갖고 있다.



### 동인가족 벚꽃 건강달리기

2001년부터 환경사랑과 지역민과의 친목도모를 위한 동인가족 벚꽃 건강달리기를 실시하고 있다. 경포 벚꽃축제기간 중에 매년 실시하는 동인사랑 행사로서 직원은 물론 시민과 동인병원을 사랑하는 가족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치루고 있다.



### 지역봉사서비스

매주 수요일 상담서비스(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법률상담), 매주

### 직원자녀들에게 장학금 전달

97년 장학회를 설립하여 병원 직원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3회에 걸쳐 장학

금수혜자가 397명에 달한다.

### 조용하나 부단한 노력 견지

환자우선을 특히 중시하는 동인병원은 금지된 병원 셔틀버스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하여 환자 불편 및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하고 정부당국에 바라고 있다.

이 병원은 영동권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조용히 최선을 다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요소 요소에 배어있다.



## INTERVIEW



이상운 강릉동인병원장

### 설립 이념은

의료시혜가 취약했던 영동지역 주민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환자중심의 병원”, “지역 공동체를 위한 병원”, “사회에 봉사하는 병원”이라는 경영이념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병원경영 철학이나 방침은

외부적으로 통제된 의료환경에서 質을 유지하려면 근검절약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데 의료보험 도입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할 당시에도 긴축경영을 해와 절약이 체질



화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단 물자를 아끼되 환자에게 ‘좋은 음식, 좋은 진료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지켜나 가려 무던히 아이디어를 내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절약의 미덕은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베풀때 발휘됩니다.

중이 하나까지도 아끼는 것이 생활화 될 정도로 타이트하게 하다보니 IMF때 직원들이 “우리병원 문닫게 될 정도면 다른 병원은 그전에 다 문닫는다”고 말 하더군요.

거둬 강조하지만 근검 절약에서 얻어진 역량은 친절, 청결, 의료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쏟고 있습니다.

2004 동인 마인드를 ‘존경과 섬세한 배려’로 삼았는데 거창한 실적을 내걸기보단 소박하면서도 병원에 꼭 필요한 내실 있는 의제를 정하여 실천에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 화합을 위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매주 월, 수, 금 '10분회의'를 가져 직위에 관계없이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로이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마련하여 인화단결을 다지고 있습니다.

직원(특히 신입)들에게 자존심, 자부심 (self-esteem)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공감 이 형성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 지역 여건, 의료환경에 대해

IMF전 잠수함 침투사건(96년)부터 시작된 지역경제의 어려움에다 설상가상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한 엄청난 재난을 같이 겪으면서 헤쳐나온 값진 경험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고 싶은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부도위기를 세 차례나(IMF, 의 약분업 시행 등)맞았었는데 지혜롭게 극복,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게 된 것을 병원 임



직원과 지역사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병원은 어려울 때 일수록 지역사회를 돕고 지역주민에게 베풀어야 지역에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늘 되새기고 있습니다.



### 환자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의료의 다각화, 전문화, 세분화는 진료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전단계입니다. 환자에게 통합적인 진료시혜가 이루어질 때 만족을 줄 수 있는데 여기서 매개체가 되는게

강  
릉  
동  
인  
병  
원

情입니다. 의료기술만 갖고는 만족을 줄 수 없으며 결국 情을 느끼게 해줘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을 비롯한 직원 상호간, 의료진 및 직원과 환자간 情이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김장을 담그는 것도 情을 중시하는데서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20년의 세월동안 병원장 어머니의 비법 그대로 직원들이 참여하여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김장을 담궈 환자들에게 최고의 김치라는 평판이 자자하다.)

### 진료의 통합화에 대한 견해는

지역병원에선 진료부문의 전문화 일변도를 지양하고 통합화를 추구해 내부에서 센터화 단계에 이를 정도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주민들에게 보탬이 됩니다. 진료파트를 될 수 있는대로 통합하고 가능한 한 조직도 작게 할 때 효율이 높을 것입니다.

### 그룹웨어를 통한 진료서비스 개선은

Group Ware는 환자에게 서비스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좀더 줄이고 직원간 의사전달을 원활화하고 나아가 지식경영까지 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구상해오다 작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Group Ware를 통해 개선 사항을 올리면 그때 그때 부서장들이 검토해 반영함으로써 신속하게 시정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바람직한 전산화 방향에 대하여

동인병원은 93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부서를 연결하는 OCS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대로 지방의 Y대병원에서 customize만 해서(내용을 다소 바꿔) 사용했을 정도로 10년동안 맞춤옷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지 관리가 잘되고 있어 불편한 사항이 없고 멈추어서 문제된 적도 없습니다.

복잡다단한 병원업무를 전산화하는데 있어 표준화가 안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이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병원전산 관련 경쟁력있는 업체들을 집중육성,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여 의료전산망 Infra Structure를 구축함으로써 내수는 물론 수출에도 역점을 두는 마스터플랜을 수립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IT 표준화를 용이하게 이룰 수 있는 실력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산화로 병원 업무를 표준화, 최적화하는 것이야 말로 의료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지름길의 하나일 것입니다.



### 동인병원의 발전 청사진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전체 680병상 중 약 300병상을 정신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과를 전문화 시켜 별도의 병원으로 분리할 계획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이며 지역주민과 직원을 위한 종합 복합복지시설(탁아소, 유아원 유치원, 수영장, 헬스장 등 공공시설)과 고령화 가속화에 발맞춰 노인전문요양원, 치매전문 병원, 유료 및 무료요양원 등 노인 관련 전문기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노화 방지 프로그램과 첨단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삶의 질을 한 등급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휴양 전문의료센터를 만들어 좀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로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 나갈 것입니다.

### 지역병원 역할과 경쟁력 제고

평범한 진료를 가장 편하고 좋은 환경에

서 받을 수 있게 의료 타운을 형성하되 병원시스템과 앞으로 세우는 시설을 연계해 사회적인 수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외국처럼 의료도 특화하여 특정 부문에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으로 발돋움하도록 특화의 장점을 살리면 외부로부터 오히려 의료수요를 유치하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개인적인 희망 및 소망

의료는 법률, 종교와 함께 신이 내려준 3가지 직업입니다.

신이 부여한 '환자진료' 소명을 다하는 가운데 병원경영이 정상화되어(불우한 사람에 대한 무료진료를 강화하는 등) 지역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차원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병원장들이 모여 회의할 때 수가문제가 아니라 질병 유병율, 감염율을 줄이는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논의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소망합니다.



### 의료산업 육성방안

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의료부문은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경영도 장거리 경주처럼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야 하며 이익을 보전하여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의료산업은 거시적인(macro) 정책만 있는데 세부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정책을 빨리 수립해 실천에 옮기는 것이 관건이며 이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강  
릉  
동  
인  
병  
원

취재 : 홍보팀 전양근·유소영

